

## 荒嶺山 野營場 名稱 變更 建議書

南區에 所在한 荒嶺山 野營場은 400萬 釜山 市民의 休息處이자 釜山の 未來를 짊어지고 나갈 靑少年들의 心身 修練場으로 脚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活用價值도 날로 높아져 이제 우리 釜山 唯一의 靑少年 野營과 건전놀이 空間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市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野營場의 名稱이 山の 이름에 따라 “金蓮山 野營場”으로 命名되지 않고 荒嶺山 野營場으로 잘못 命名되었으므로 野營場이 位置한 山の 實名에 따라 그 名稱을 金蓮山 野營場으로 變更하여 주실것을 建議합니다.

古來로부터 大名寺刹을 비롯하여 城과,地名등의 固有名詞는 主山の 이름을 따라 命名되었으며, 이는 現在에도 慣例化 되어 오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리고 野營場이 들어서 있는 山이 荒嶺山이 아닌 金蓮山이란 事實은 여러 文獻과 記錄들을 살펴 볼 때 明若觀火하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鄉土史學者 崔海君의 近著 「釜山の 脈」에서 “金蓮山은 廣安洞의 뒷산이 된다. 도시고속도로가 金蓮山 동남쪽을 지난다” 라고 記錄되어 있으며, 지금의 蓮山洞의 名稱또한 金蓮山の 蓮山을 따른 이름이라는 記錄이 있고,

“荒嶺山과 金蓮山の 境界는 不分明하나 蓮山洞의 마하사 계곡과 南區의 南川 계곡을 境界로 나눈다면 마하사는 荒嶺山쪽이 되며, 門峴洞과 大淵洞의 북쪽이 된다”는 등의 記錄으로 볼때 荒嶺山과 金蓮山の 區分은 뚜렷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9年 5월에 국립지리원의 審査를 거쳐 發行된 全國道路觀光地圖에도 野營場이 들어서 있는 곳이 金蓮山으로 表記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野營場의 名稱을 命名하고 管理를 擔當하고 있는 釜山直轄市에서 1989年 發行한 「釜山市史」 第1圈에도 荒嶺山과 金蓮山の 區分과 함께 金蓮山脈은 장산과 금련산, 황령산, 봉래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記錄이 있으며, 특히 金蓮山은 “해발 415m로 荒嶺山の 北東쪽 약 1km에 있는 山이다.... (중략) .. 南쪽 山麓에는 靑少年 野營場이 있다”고 記錄되어 있습니다.

이 部分은 現 荒嶺山 野營場의 名稱이 잘못되어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또한 1940年(소화 15年) 發刊된 釜山 第2公立 商業學校(現 釜山商高)의 校歌 “金蓮의 峯 빛나면 ...”이라는 句節은 金蓮山이 옛부터 잘 알려진 큰 山이었음을 말해주는 部分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南區에서 오래 居住한 많은 뜻있는 區民들 또한 “荒嶺山 野營場이란 名稱은 잘못 지어진 이름이므로 山の 固有 名稱에 따라야 한다”는 輿論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區民의 精神 文化 向上과 愛鄉心 鼓吹는 물론 우리 고장의 悠久한 歷史와 傳統을 바로 이어 나가기 위해 野營場의 名稱을 山의 實名에 따라 “金蓮山 野營場”으로 變更하여 주실 것을 南區議會의 意見을 集約하여 全 議員의 이름으로 建議하오니 적극 反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添附 : 關聯 文獻·資料(6種) 各 1부.

1992年 11月

釜山直轄市南區議會 議長 梁漢錫外 議員 一同

## 資料 1

## 釜山の脈 上

1990년 5월 10일 인쇄

1990년 5월 15일 발행

지은이/崔 海 崙

펴낸이/황 성 알

펴낸곳/도서출판 地 平

(1983. 1. 17 등록제카-41)

부산시 중구 대청동 2가 12-2

(051)462-7012, 7013

박은꽃/동 아 전 산 인 쇄

## 22. 금련산(金蓮山·415m)

황령산과 몸을 같이한 산으로 盍山을 마주보는 산이다. 광안동의 뒷산이 된다. 도시고속도로가 금련산 동남쪽을 지난다.

태백산맥이 부산으로 들어선 산맥을 金蓮산맥과 金井산맥으로 나눌 때 금련산맥의 중심이 되는데 水營川으로 단층곡이 크게 나 있거나 蓼山과 이어진 산줄기이다.

산이 연꽃모양을 해서 금련산이라 했다는 말도 있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릴 때의 황금색 金蓮花로 말미암아 금련산이 되었다는 말도 있다. 금련화로 인한 금련산이라면 마하사(摩訶寺)와 연관이 있는 말로 여겨진다. 문헌상 기록으로는 동래부지에 금련산을 「동래부 남쪽 5리에 있다. 산 아래 水營이 있다」고 했을 정도다. 蓮山洞은 金蓮山으로 연산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 23. 황령산(荒嶺山·427m)

동국여지승람에는 누를 「黃」의 黃嶺山으로 기록하여 「縣에서 남쪽 5리에 있다」고 하였고, 동래부읍지에는 거칠 「荒」의 荒嶺山으로 기록하여 和池山으로 뻗어났으며 마하사가 있다고 하였고, 동래부지도 거칠 「荒」의 荒嶺山으로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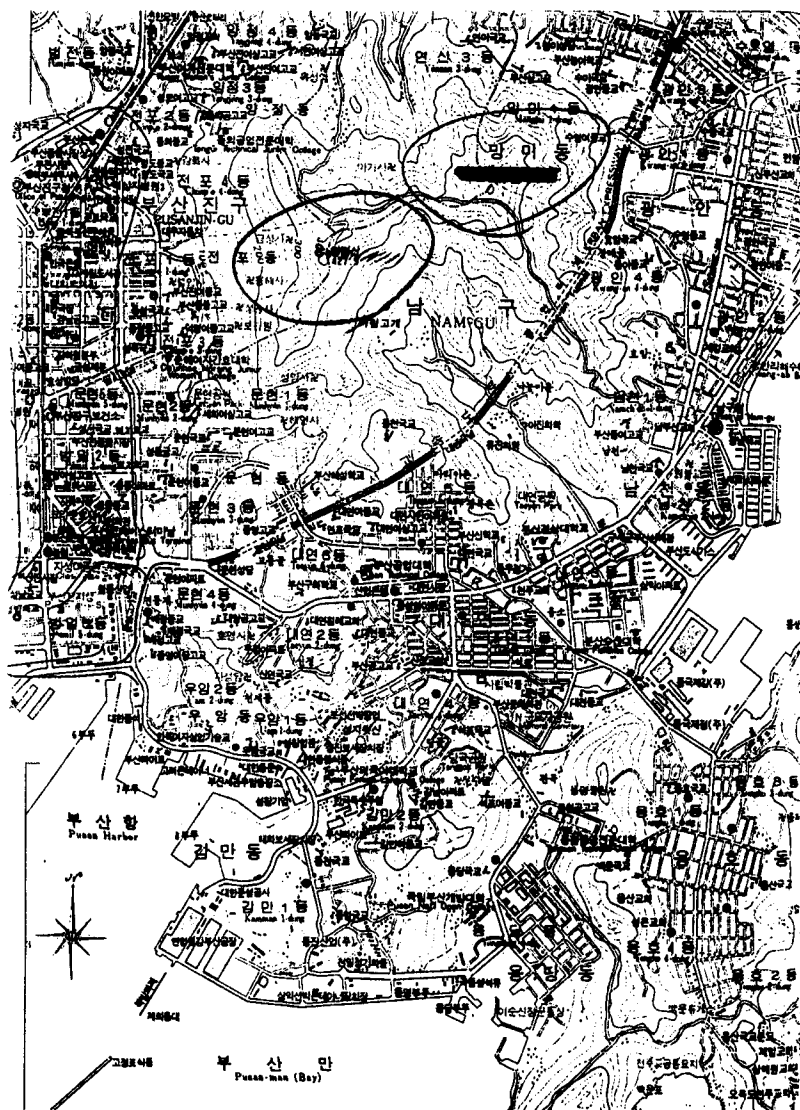
황령산과 금련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연산동의 마하사 계곡과 남구의 南川계곡을 경계로 두 산을 나눈다면 마하사는 황령산 쪽이 되고 門峴洞과 大淵洞의 북쪽이 되며 田浦洞의 동쪽이 된다.

황령산은 동래가 신라에 정복되기 이전에 동래지방에 있었던 거칠산국(居漆山國)에서 온 산 이름으로 보고 있다. 거칠산국에 있는 산이어서 「거칠괴」라 했던 것이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거칠 「荒」, 고개 「嶺」의 황령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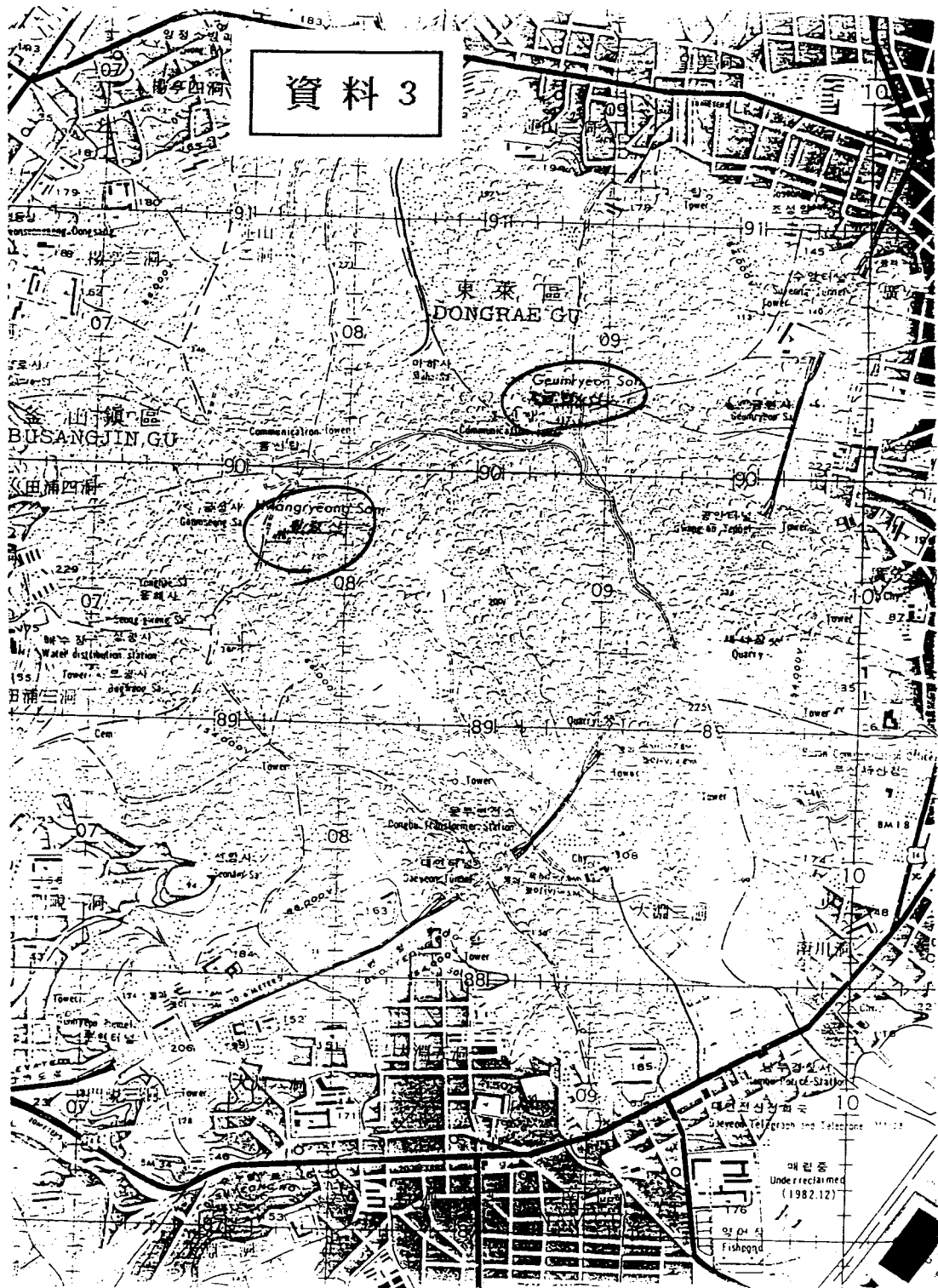
## 資料 2

★全國道路觀光地圖★ W 5,000

발행 : 1989년 5월 5일  
 편집인 : 최영규  
 발행처 : 성지문화사  
 지도제작 : 성지문화사 지도실  
 인쇄 : 국립지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21 89  
 등록번호 제 3-47호 (1979. 4. 7)  
 편집부 : 794-0881 영업부 : 795-9941



資料 3



## 資料 4

## 제3절 지형각론

에 걸친 착랑공사로 고도가 많이 낮아졌으며 지금은 고개 밑으로 2조의 터널이 개통되어 양편의 교통이 편리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하구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나. 금련산맥(金蓮山脈)

이 산맥은 이미 소개된 부산의 척량산맥인 금정산맥에 비하면 고도가 한단계 낮고 산맥으로서의 연속성이 미약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장산에서 금련산, 황령산, 봉래산으로 이어지는 이 산맥은 해안에 치우쳐서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해안산맥(海邊山脈)의 성격이 뚜렷하며 따라서 부산에 있어서 해안과 내륙과를 갈라놓는 자연적인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울산단층에 지배된 단층산지이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향하여 갈라놓는 자연적인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울산단층에 지배된 단층산지이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향하여 갈라놓는 자연적인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특징이 소멸되어서 산정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성을 잔존하고 있다. 이 영반암, 그리고 남서쪽은 화강암으로 구성된 중순형으로 되어 있다.

금련산맥의 지형수영강 이동은 높고 험준하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진다.

이러한 맛을 잃어버린 중순형이고, 산맥의 특징이 있다. 산맥의 높이는 255m, 백산(110m)과 같은 독립구릉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산작만이 겨우 유지되면서 부산만에 몰입하는 산등성이의 지맥도 있다. 우암반도가 그 좋은 예이다. 남부는 봉래산을 주봉으로 하는 영도로 산정은 예리하며 사면도 급한 것이 특징이다.

금련산맥을 구성하는 주요 산과 그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산

## ●장산(長山)

해발 634m로 금련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 산은 대부분 석영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쪽 산록은 용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에는 광천(鑛泉: 해운대온천)이 분출한다. 전체의 도상은 원주형으로 산정은 예리하고 사면은 가파르며, 산정 아래에는 제4기 빙하시대에 형성된 애주가 발달하고 있다. 일명 상산(上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산이 본래 파수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웃되」라 부른데서 비롯된다.

## ●황령산(荒嶺山)

금련산맥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산으로 높이는 427m이다. 대부분 안산암질로 구성되어 있는 황령산은 산정이 비교적 평탄하며 곳에 따라 소규모의 성채의 경관을 나타내는 기반암이 노출한다.

## 釜山市史 (第一卷)

1989年 12月20日 印刷

1989年 12月31日 發行

發行處 釜山直轄市

發行人 安相英

編著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印刷 第一印刷

부산직할시 중구 남포동 6가68

TEL: (051) 246-4511(代)

FAX: (051) 243-4566

(非賣品)



## 제1장 지 세

북동쪽으로 금련산에 연결되나 오랜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하천의 개석작용에 의해 해체되어 산지로서의 예리한 맛은 없으며 주위에는 곳에 따라 독립구릉이 분포하고 낮은 산동성에도 여러갈래로 뻗고 있다. 특히 남동 산록은 이러한 특징이 뚜렷하며 남구의 남천동과 대연동 일대에 뻗어 있는 완만한 산동성이 그 좋은 예이다. 이 산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옛 동래부의 안산(案山)이었으며 지금은 남구의 대연동과 남천동의 진산에 해당된다. 산정에는 옛날 해운포를 감시했던 봉수대의 석축이 남아 있다.

## ●금련산(金蓮山)

해발 415m로 황령산의 북동쪽 약 1km에 있는 산이다. 남구의 광안동, 수영동과 동래구의 연산동을 경계짓고 있다. 노년산지의 특징을 나타내며 산정은 종순형으로 둥근 맛이 강하고 사면은 대체로 완만한 편이다. 산 전체가 울창한 산림으로 덮혀 있으며, 남쪽 산록에는 청소년야영장이 있다.

## ●봉래산(蓬萊山)

금련산맥의 남서부 말단에 있는 산으로 해발 395m이다. 부산만에 자리잡고 있는 영도의 주봉으로서 산 전체가 원추형(円錐型)을 나타낸다. 사면은 가파른 편이고 특히 남쪽 사면은 급한데다가 바다에 거의 수직으로 물입하여 해식애를 이룬다. 산록에는 중력에 의해 떨어진 암석들로 구성된 애주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고갈산(枯渴山 또는 枯蟻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고갈산이 마른 도마뱀의 산으로 목이 마른 산이라는에서 비롯된다.

## 나) 고 개

## ●찌꺼고개(門峴)

황령산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우암반도의 중앙에 있는 낮은 안부로 해발고도 70m이다. 문현로타리에서 대연동, 남천동 등 해운대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이 고개의 형태가 마치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고 해서 옛날부터 찌꺼골(尸谷) 또는 찌꺼골고개라고 불렀으며, 지금은 문현고개 또는 대연고개로 불리고 있다.

## ●마비치(馬飛峙)

황령산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진 산각과 금정산맥의 지맥인 금정봉의 남동 산각 사이에 있는 낮은 안부로 고도는 약 50m이다. 현재 전포동에서 양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도가 낮고 차량 통행이 많아 고개다운 모습은 전혀 느낄 수 없으나, 옛날에는 험한 산 고개인데다가 많은 산적들이 횡행하여 이 고개를 넘을 때는 마치 말을 타고 경주하듯이 달리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러한 연유로 이 고개는 마비치로 불리게 되었다. 이 고개는 일제시대 이 곳에 국도를 만들고 동해남부선 철도를 부설할 때 착명한 관례로 지금과 같이 고개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평지로 변하였다.

## 다. 신어산맥(鯢魚山脈)

서부명야지대인 낙동강상각주를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지로 양산군 원동면의 토곡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달리다가 김해군 대동면 일대에서 낙동강의 하곡에 의해 단절되고 김해군과 김해시를 경계짓는 신어산에서 다시금 위용을 드러내면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불모산으로 이어간다. 불모산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지맥이 고도가 한 단계 낮은 구릉성 산지를 형성하면서 남해에 물입하고 다시금 가덕도에서 높게 솟아 연대봉을 이룬다. 이 산맥은 기본적으로 북동-남서

1992년 10월 10일 토요일

資料 5

荒嶺山(荒嶺山)은 경기도 양주시 양북면 양북리 산 1-1에 있다. 높이는 485.4미터이다. 이 산은 조선시대에는 양북산(楊北山)이라고 불렀다. 양북산은 양북리에서 북쪽으로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양북산은 양북리에서 북쪽으로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荒嶺山(荒嶺山)』명칭잡록

산악인 김재현의 산악지식

산악인 김재현의 산악지식. 이 책은 산악인 김재현의 산악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산악인 김재현의 산악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산악인 김재현의 산악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金蓮山중턱위치, 修正필요

建議書 南구외에 제출 귀추조

金蓮山(金蓮山)은 경기도 양주시 양북면 양북리 산 1-1에 있다. 높이는 485.4미터이다. 이 산은 조선시대에는 양북산(楊北山)이라고 불렀다. 양북산은 양북리에서 북쪽으로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양북산은 양북리에서 북쪽으로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金蓮山(金蓮山)은 경기도 양주시 양북면 양북리 산 1-1에 있다. 높이는 485.4미터이다. 이 산은 조선시대에는 양북산(楊北山)이라고 불렀다. 양북산은 양북리에서 북쪽으로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양북산은 양북리에서 북쪽으로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 資料 6

제 11459 호

(1989. 3. 15 第3種郵便物(가) 認可)

1989. 3. 15

제

## 讀者마당

독자여러분의 글 사진 만화를 기다립니다.

보낼곳: 부산동구범일2동 252-127 국제신문 사회부

## 함께 나누며

## 「荒嶺山 아영장」명칭

金龜山이 이렇는지

일마전 부산시가 개발한 「용평산(荒嶺山)아영장」의 명칭 문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여부터 본 절은 그 절이 안거하고 있는 주산(主山)의 이름을 붙여 사할명을 짓는 것이 보통이다. 부산시가 거역의 예산을 붙여 세운 용평산아영장도 주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영은 몇가지 의문점이 따른다.

우선 내가 다닌 부산상고의 일제당시 교가에 「金龜의 뿔 뿔나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金龜가 곧 아영장의 주산이라고 알고 있다. 또 金龜山 자락을 평평위하게 깔고 있는 龜山동의 동명 역시 금련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안 남천동 일원에 대한 옛기록들이 전하는 바도 金龜山이라 했다.

이에따라 우리를 산악동호인이 개발한 산정 밑의 산수를 「金龜泉」이라 이름짓고 금련산우회를 조직한 일도 있다.

뿐만 아니라 향토작가 崔海容씨의 근저 「부산의 역사」권 5항 「부산의 산」에도 金龜山과 荒嶺山이 상술되어 있다.

따라서 아영장의 주산은 康院寺계곡을 경계로 동서로 맞붙어있는 金龜山(415m)과 荒嶺山(427m) 가운데 금련산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본다. 부산시는 사계의 권위자로부터 고증을 받아 반드시 이를 규명,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金龜相·부산남구대연동1808 대연삼익미치 103호891호>